



서울 화계사를 방문한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는 난생 처음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호지 여사는 발우공양을 '가장 완벽한 식사법'이라고 평가했다.

## “자연·지역 함께 하는 공동체 복원해야”

7월 11일 화계사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 주제로 강연 발우공양 체험 후 “가장 완벽한 친환경적 식사법” 찬사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쓴 <오래된 미래-라다크에서 배우다>를 떠올려 보자. 전통사회인 라다크가 서구문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선명하게 증언한 이 책은 반세계화, 반개발, 지역 자립경제 복원이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졌다. 스웨덴의 언어학자이자 세계적인 생태환경운동가인 호지(61) 여사가 7월 11일 서울 화계사를 방문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MBC 세계여성포럼의 초청으로 방한한 호지 여사는 11일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강의하고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호지 여사는 1980년부터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국제조직을 만들어 라다크의 공동체 의식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으며, 1986년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 ‘바른생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1년부터 ‘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y and Culture)를 운영하며 생태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다.

호지 여사는 이날 강연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불교의 가르침대로, 자연과 지역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며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연



발우를 선물하는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



자신의 책 <오래된 미래>에 사인을 하는 호지 여사.

내용 박스 기사 참조

1시간 동안의 강의를 마친 후 호지 여사는 보화루로 자리를 옮겨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수경 스님은 호지 여사에게 ‘부처님은 우주 만물이 모두 한 생명이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악순환으로 세계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지 여사 또한 “불교는 자연과 인간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응수했다. 수경 스님은 호지 여사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이 염주가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세계를 구하는 큰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담에 이어 호지 여사는 난생 처음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화계사 문화원장 표봉 스님의 지도로 조식스레 발우를 편 호지 여사는 발우에 담긴 뜻과 음식을 먹는 만큼만 먹고, 오관개로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식사 후 그릇에 남은 음식을 깨끗이 닦아 그 물을 마시고, 그릇을 씻은 천수를 역시 맑은 물만 버리고 찌꺼기는 마시는 발우공양 의식도 직접 체험했다.

호지 여사는 “발우공양은 세계에게 가장 친한 경이적이고 깨끗하고 자원절약적인 식사법이며, 또한 발우를 들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능한 ‘수행식사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호지 여사는 국내에서 발우공양의 정신을 이어 받은 ‘빈그릇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놀라며, “자연의 낭비를 막는 발우공양이 전세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대 사회에서, 발우공양 정신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발우공양 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여수령 기자·사진=박재민 기자

### <강연 요약>

## 상호의존과 자연의 가르침 배우자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나 영적 지도자가 생존해 있을 때의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당시 구상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았고, 자연과 공동체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와 세대 간, 이웃 간, 가족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호의존적이었다. 같은 공동체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공동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들은 자연과 타인, 동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이때는 자연과 공동체의 유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처님이 설립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호의존과 자연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내가 1970년 처음 라다크에 갔을 때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도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되게 만든다.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는 진보와 경제발전, 세계화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또한 외국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미국이 한국에, 한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투자는 무역을 증가하게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한국은 미국에서 고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캐나다에서 고기를 수입한다. 미국은 매년 800톤 가량의 고기를 수출하는데,

또한 그 만큼의 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 이러한 수입과 수출은 어떤 의미에서 ‘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그것은 기업이 국가와 지역,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은 필요할 때만 해야 하고 무역을 위한 무역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라 여기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방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는 농민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의존과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 값 중 소비자가 농민에게 지불하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운송과 포장, 광고에 쓰인다.

단거리 무역은 이 같은 손실을 막고 다양한 품목을 유기농산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역화 시스템을 통해 농부도 이익을 얻고 소비자도 적은 돈을 내고 유기농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직업도 다양해지고 지역에서 자본의 이동도 더 많아질 것이다. 경제 규모를 지역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상호의존해 살아가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며 진정한 의미의 ‘웰빙’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공동체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이드라망처럼 얽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서로 나누고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경제 지역 단위로 운영하면 문화·공동체 살아나게 되고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진정한 ‘웰빙’ 할 수 있어

###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자, 옴나니반에음축자 등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의자 (335 x 50cm) (442 x 65cm)

연꽃자 26 x 26cm

축자 60 x 20cm

**소형금풍종 규격: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풍종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재래종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을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발구등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을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발구등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죽이 저명한 흑단목염주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 가능함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26x16x16cm 155,000원 (소)20x12x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을 마음 줄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되어 주나와 예배에서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불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으로 최고입니다. \*제품 특성상 수중에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흑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 마염주입니다. 진법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인(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에 비해 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98%의 성공작률으로 영험토록 색상의 금강염주입니다.

주는 몸에 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98%의 성공작률으로 영험토록 색상의 금강염주입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는 1,500°C 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기와 93%의 원적외선, 높은 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험토록 색상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 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 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향 문의전화 02)722-1850